

“세종, 천민 흥씨와 애뜻한 사랑... 창작무용극으로 만나다”

인터뷰

최혜경 선아예술단 이사장

“세종, 소용의 남자’는 세종 후궁 중 유일한 천민 출신인 흥씨와 세종의 러브 스토리를 창작무용극으로 그렸습니다.”

세종대왕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은 한글창제다. 그런 성군 세종이 천민을 사랑했다는 역사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적인 색채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룬 무용극을 선보여 왔던 선아예술단이 세종의 애뜻하고 은밀한 러브스토리를 창작무용극으로 선보인다.

최혜경 선아예술단 이사장은 “천민의 신분으로 궁에 들어가 내명부 정3품의 품계인 ‘소용’의 위치에 오른 후궁 흥씨와 세종의 사랑을 춤과 음악으로 그려낸다”며 “흥씨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으나, 세종이 그의 오라비인 흥유근에게 유난히 애뜻했다는 기록에서 소용과 세종의 사랑을 유추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24일 오후 8시 광진나루

“

‘세종, 소용의 남자’ 공연 총 4막으로 구성
검무 등 화려한 액션신
신분을 넘어선 사랑
최고의 감동 무대 선사

”

아트센터에서 관객들을 만나게 될 이 작품은 (주)선아기획이 주관하고 (주)BK 메디텍, (주)시도여행사가 후원한다.

공연은 총 4막으로 구성됐다. 1막은 ‘관저지화’로 태종, 세종(충녕대군), 소헌왕후가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최 이사장은 “왕들과 왕후의 스토리로 주로 이뤄지며 화려한 궁중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막 ‘택현’에서 소용이 등장한다. 세종이 왕세자 책봉 전사에서 3년간 생활한 것에 착안, 마을 신과 장터신에 맞물린 군무가 펼쳐진다. 3막은 ‘왕자의 난’으로도 볼 수 있



최혜경 선아예술단 이사장

다. 궁궐 내 권력의 암투 등을 동적인 음악과 움직임으로 선보인다. 최 이사장은 “검무 등 액션신을 화려하게 넣었다”고 강조했다.

이 공연의 특이점은 4막이다. 4막 ‘빙탄상애’는 소용과 세종의 러브신이 펼쳐지는데, 신분의 차이를 넘고 마침내 이뤄진 둘의 사랑을 하이라이트로 공연이 마무리된다. 최 이사장은 “세종이 소용을 만나기 위한 ‘궁녀모집’이라는 스토리를 넣었다”며 “기존의 무용극들을 벗어난 잔잔한 결말을 의도했다”고 강조했다.

세종과 소용은 신인 신동혁과 선아에



무용극 ‘세종, 소용의 남자’ 주역들

/선아예술단 제공

술단 소속 엄정아가 연기한다. 최 이사장은 “신씨는 문화체육부장관을 거머쥔 신인으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많은 믿음직한 무용꾼”이라고 자부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탤런트 노현희가 소헌왕후로 무대에 오른 점도 눈길이다.

연출은 박미경 단국대 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가 했다. 최 이사장은 “각 분야해서 최고를 달리는 베테랑 분들이 영상과 조명을 맡아 최고의 감동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11년에 창단한 선아예술단은 대한씨름협회 오프닝을 전속으로 공연하고 있다. 예술단은 ‘세종, 소용의 여자’가 4번째 정기공연이다. 이번 공연을 성공리에 초연하고 향후 그간 공연을 재구성하는 게 목표다. 최 이사장은 “장희빈, 사랑에 살다’도 새롭게 각색해 무대에 올리려 한다”며 “장애인 대상 무용 교육,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춤과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사업도 자체적으로 이어가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중앙정형외과 이재오 원장과 동국생명과학 진단장비사업부 서정호 팀장(오른쪽)이 ‘모바일CT 파이온 2.0 이미징랩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국생명과학-중앙정형외과 업무협약

첨단영상진단장비로 촬영 빠르게 방사선 낮게

‘모바일CT 파이온 2.0’ 도입

동국생명과학은 지난달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중앙정형외과’와 ‘모바일CT 파이온 2.0 이미징랩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첨단영상진단장비 ‘모바일CT 파이온 2.0’은 세계 최초의 척추 경용 의료용 ‘콘빔 실시간전산화단층촬영장치(One Beam CT)’로, 기존 파이온의 성능을 대폭 개선해 사지 관절뿐 아니라 척추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특히, 빠른 촬영이 가능하고 짧은 시간 안에 결과도 확인할 수 있으며, 방사선 노출량이 낮아 안전성도 높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천 중앙정형외과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척추경용 콘빔 CT인 ‘모바일CT 파이온 2.0’을 도입하고, ‘이미징랩스(의료영상 분석 연구실)’로서 동국생명과학과 함께 의료영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다른 병원 관계자들이 방문해 기기 운영 현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세경 기자

“포지오티닙, HER2 변이 암 극복 가능성 제시”

(비소세포암 치료제)

한미약품 연구결과 학술지 등재 HER2 변이 암종 표적 최적화 확인

한미약품의 항암 혁신신약 ‘포지오티닙’이 EGFR 변이로 발생하는 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종에서 발현된 HER2 변이에서도 우수한 종양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약품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지난 3일(현지시각) 캔서셀(Cancer Cell) 온라인판에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등재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논문은 향후 캔서셀 인쇄본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포지오티닙은 단백질 EGFR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비소세포암 치료제다.

한미약품은 이번 등재된 연구를 통해 포지오티닙이 EGFR 변이 뿐 아니라, HER2 변이 양성 비소세포암을

비롯한 다양한 돌연변이를 동반한 암종에서 활용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EGFR이나 HER2 변이가 발생하면 약물-결합 포켓이 좁아지면서 약물 결합을 제한하는데, 포지오티닙은 작은 사이즈와 구조적 유연성을 가져 이러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25개 암종에서 다양한 HER2 변이 분석을 위해 진행된 역대 최대 규모로, MD 앤더슨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의 20만명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연구 결과, 포지오티닙은 가장 강력한 HER2 변이 억제제(TKI)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 포지오티닙은 HER2 Exon20 변이 비소세포암 환자들에서 매우 활발한 반응이 나타났다.

MD 앤더슨 암센터의 존 헤이맥 박사는 “이번 연구로 포지오티닙이 복잡한 결합 위치를 가진 HER2 변이 암종을 표적하는데 최적화됐다는 점을 확인했

다”면서 “전임상 연구에서 확인된 T-DM1(HER2 타겟 항체 약물 복합체)과의 시너지 효과를 추가 입증하기 위한 병용 임상 연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스펙트럼은 현재 비소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오픈라벨, 다기관, 단독 투여 글로벌 임상 2상(ZENITH20)을 진행 중이다.

스펙트럼 조터전 대표이사는 “캔서셀에 등재된 이번 연구 결과는 포지오티닙의 우수한 효과를 다시 한번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됐다”며 “이번 분기 내 ZENITH20 임상의 첫번째 코호트(치료 전력이 있는 EGFR Exon20 변이 비소세포암 환자 대상) 주요 데이터들, 2020년 중순에는 두번째 코호트(치료 전력이 있는 HER2 Exon20 비소세포암 환자 대상) 주요 데이터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화의료원,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 입주 기업 모집

산·학·연·병 함께 사업 추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22일까지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에 입주할 산학 협력 기업을 모집한다.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는 국제 첨단 융복합 메디컬 의료기술 사업화 및 연구개발(R&BD) HUB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이화여자대학교-이화의대-이화의료원 세 개의 축을 기반으로 산·학·연·병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화의대의 강서구마곡지



이대목동병원 전경

구 이전 후 이대목동병원 내 의학관에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컬 클러스터 산학협력 공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입주할 산업체를 모집하게 되었다.

이번 입주 기업 모집 분야는 제약, 바

이오,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분야로 오는 14일 현장 설명회를 시작으로 22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문병인 의료원장은 “이대서울병원 개원을 계기로 이화의료원이 글로벌 첨단 융복합 헬스케어 R&BD HUB로 도약하기 위해 산학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고 바이오·의료 산업을 선도하고자 산학협력 공간을 마련, 입주 기업을 모집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첨단 융복합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입주 기업의 R&BD 업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롯데면세점 “즐거움 찾아드립니다”

“너의 FUN은 뭐냐?” SNS 캠페인 자신만의 즐거움을 사람들과 공유

롯데면세점이 10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너의 FUN은 뭐냐?”이라는 주제로 SNS 캠페인을 시행한다.

개인의 FUN한 일상을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한 후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친구 두명을 태그하여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이다.

롯데면세점의 ‘남’ 캠페인은 ‘Lotte

Duty Free’의 영문 첫자인 LDF를 한글로 형상화하여 내국인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진행됐다.

이번 ‘너의 FUN은 뭐냐?’ 캠페인도 이러한 FUN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들이 각기 다른 자신만의 즐거움(FUN)을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릴레이로 유도하여 즐거운 경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